우리에게 아브라함 카이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3)

기독교 학문을 하도록 하는 도전

지난 호에서는 모든 기독교 활동의 토대를 분명히 한 것에 근거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그 한 부분으로 학문에 대한 카이퍼의 도전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기독교적인 학문 연구에 관심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고찰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카이퍼는 과연 학문하는 일에 대해 어떤 도전을 주게 될 것인가?

이승구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 학문

카이퍼의 기본 생각은 **학문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카이퍼 당시에도 학문이 세속화되었음을 그는 매우 강조한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학문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카이퍼는 학문이 중립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사람들이 가진 전제와 선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학문이 시도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중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두 종류 사람은 필연적으로 삶과, 삶에 대한 의식(意識), 학문 역시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낳는다.[1]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삶과 두 종류의 삶에 대한 의식(意識)이, 그리고 두 종류의 학문이 있다는 사실을 낳는다."[2]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 안에 여러 복잡한 문제들도 있지만) 정상적(正常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정상성(正常性)을 중심으로 학문을 한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는 자연주의 입장에서 학문을 하게 되므로 이는 자연주의적(naturalistic)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3] 이에 비해서 중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 안에 상대적으로 선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타락한 곳으로서 비정상적(非正常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문을 한다. 그리고 주어진 계시를 받아들이면서 학문을 한다. 카이퍼는 이런 학문을 기독교(Christian) 학문이라 표현하는데, 자연주의 학문과는 대립적(antithetical)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학문에 이런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카이퍼가 강조하는 바들이 오늘날 잊혀지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신학에 대해서도 두 입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를 그대로 수용한다. 그들에게 신학은 받아들인 계시를 잘 설명하고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학문이 된다. 이에 비해 거듭나지 않은 입장에서는 하나님 계시에 대

1) 이는 특히 Abraham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Charles Scribners' s Son, 1898; reprint, Grand Rapids: Baker, 1980), 150–76의 강조점이다. 여기서 카이퍼는 두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두 종류의 학문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2)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154.

3)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181.

신학에 있어서도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여 잘 설명하고 제시하려 하지만 중생하지 않은 관점에서 신학을 할 때는 계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적용시켜 왜곡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분명히 다른 두 가지 학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적용시키려 한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왜곡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계시를 왜곡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카이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같은 학문 분야에서도 분명 다른 입장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한다.

거듭난 사람이 하는 기독교 학문

그렇다면 중생자의 탐구로서의 기독교 학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그것을 기독교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문을 해야만 한다. 다른 것이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학문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진정 기독교적으로 학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 목적과 관련된 기독교 학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그 학문 주제(subject-matter)와 진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主權)이 온전히 인정될 때 그런 학문적 작업을 기독교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배제된 학문은 기독교 학문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일부만 인정하는 것도 온전한 기독교 학문이 아니다. 이 세상에 주권은 다른 것 안에 있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학문과 그런 태도의 학문적 활동만이 기독교 학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따져 보면 이 세상에 우연히(by chance) 생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과 잘 연관 될 수 있는 학문은 기독교 학문과는 거리가 멀고, 그런 전제를 지닌 생각이 스며들어 와도 온전한 기독교 학문은 아닌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므로 인간은 그 어떤 일에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일종의 숙명론적인 사상도 기독교 학문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학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학문 활동이다. 이것은 내용 진술과 학문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독교 학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존중하며 성경의 내용과 특히 성경적 세계관과 정합성(모순없이 일치하는) 을 가질 수 있는 학문만이 기독교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학문의 내용이 다 성경에서 나올 수는 없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학문이 진정한 것이려면 적어도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서로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바르게 해석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옳은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서 기독교 학문은 성경적 세계관과 정합성을 유지하니, 사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독교 학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문을 하는 분들은 그 어떤 학문 분과를 연구하든지 계속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탐구하고 그것을 더 분명히 외현화하며, 그것이 더 성경적이 되게 하고, 자신의 학문이 성경적 세계관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기독교 학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의존해서 그 학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주로 학문을 하는 과정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그 언제나 성령님께 의존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문은 항상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 학문 활동이어야 한다. 성령님을 배제한 활동은 기독교 학문적인 것이 아니다. 철저히 성령님에게만 의존하면서 학문을 해야만 그것이 기독교 학문이다. 이것은 학문을 하는 태도와 관련된 기독교 학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학문적 활동은 자신의 활동이나 그 결과물을 높이거나 그것 자체에 아주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견해들도 존중하되 단지 본인 자신의 활동이 과연 기독교 학문적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듯이 다른 결과물에 대해서도 같은 검토를 할 뿐이다. 그런 뜻에서 기독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교만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독교 학문은 이제 까지 말한 모든 특성들을 잘 나타내면서 진정 사람들을 위하는 이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만일에 학문의 과정과 그 결과가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 기독교적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기독교 학문은 진짜 인간존중사상을 실천하게 하는 통로여야 한다. 이는 기독교 학문의 목적인 동시에 결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신론적인 관점에서도 휴머니즘을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가치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땅위의 사람이나 혹은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기독교는 그런 세계관이며 문화이다. 아직까지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성경적인 문화는 존재한 적도 없고, 아마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속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성경적인 문화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세상을 중립적인 의미의 세계로도 많이 표현하지만, 그보다는 죄로 물든 세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세계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란 비성경적인 공리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 쪽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현실적으로 기독교 학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에 제시된 특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카이퍼처럼 학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criteria) 제시는 모두가 기독교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학문에 소명을 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학문 활동에서 반드시 이같은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물론 때때로 학문하는 과정에서 이와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항상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학문의 패러다임 자체가 비기독교적이라는 점이다. 현대는 신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던이 여러 학문들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학문에 접근하려 하면 종교활동으로만 치부하고 학문하는 게 아니라며 비웃는다.

그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 학문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독교 학문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이다. 우리가 온전히 기독교적 학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의식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진정 통회(痛悔)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학문 활동에로 다가가려고 다시 다짐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에 의존해서 그런 학문적 노력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전제와 방법론을 비롯한 학문의 패러다임 자체가 비기독교적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는 카이퍼 시대보다 오늘날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카이퍼의 시대에는 진화론과 유물론, 무신론, 인간의 힘으로 혁명하여 진보를 이루려는 진보주의와 혁명주의 등이 모든 학문계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 현대에는 이런 모던주의(modernism)의 강조점과 함께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여성주의(feminism), 그리고 포스트모던 사상(post-modernism)이 여러 학문들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입장으로 학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긍해 준다. 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학문에 접근하려 하면 종교활동으로만 치부하고 학문하는 게 아니라며 비웃는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는 이런 조소와 비판에 대해 용감하게 마주 서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한 부분이다. 이를 피해 갈 때 우리들에게는 기독교 학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그저 싸움을 하면서 학문을 하진 않아도 된다. 어떤 학문을 할 때에라도 진정 기독교 학문을 하는 이들은 그 어떤 이론에 사로잡혀 학문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점이기도 하다. 대개 이 세상의 학문하는 사람들은 특정 이론을 중심으로 학문을 하기 쉽다. 그래야 논의거리가 될 수 있는 탓이다. 하지만 기독교적 입장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제시한 다양한 이론들을 대조시키면서 그 모든 이론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대조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원칙에 근거한 실질적인 학문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학문적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작업이 이 세상의 보다 많은 현상을 더 잘 설명해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독교 학문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없이 학문을 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오래전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말해 주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 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전도서 1:18)". 또한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전도서 12:12)".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학문의 결과여서는 안 된다. 전도서의 이 말씀들은 학문 일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학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여러 시금석에 부합되는 학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자신에게도 진정 의미 있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의 모든 활동은 결코 헛되지 않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의 학문 활동은 그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아주 부족하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다. 지금 우리가 하는 학문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이기를 카이퍼가 강력히 권면하는 것이다.

마치면서 하는 도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反)-지성주의자들이나 반(反)-학문주의자들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학문 활동이 그저 인간적인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主)로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 그러므로 처음에 말할 바와 같이 카이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모든 삶의 활동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즉,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학문하는 이들이라면 그 학문하는 바가 모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영역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학문 작업을 하고 있는지, 다른 분들의 글들도 이 지면에 실려지기를 원하며 글을 맺는다.)

이승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 세인트 앤드류스대학교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고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을 거쳐 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과 부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요리문답강해1, 2』, 『21세기 개혁신학』, 『광장의 신학』,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이 있다.